

BOG

MAGAZINE

정정당당스토리

N°06 8월호

편리한 사전투표, 재·보궐선거에도 실시됩니다!

'대서(大暑)' 무더위를 피하는 음식은?

가우스전자 마케팅3부의 회식 이야기

여론조사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멀고도 험했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접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월 30일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15곳

기초의회의원 1곳

※ 총 16개 선거구

7.30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대서(大暑)’ 무더위를 피하는 음식은?

-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 이기기 -



오늘은 한 해 중 가장 더워진다는 '대서(大暑)'입니다. 대서는 24절기의 하나로 소서(小暑)와 입추(立秋) 사이를 의미하는데, 이 시기는 대개 중복(中伏) 때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할 때라고 합니다. 예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 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 더위가 어느 정도 일지 조금은 예상이 되네요~ 그래도 다행인 올해 대서의 경우 시원하게 비가 내려서 염소 뿔이 녹을 정도의 더위는 피해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더운 대서를 맞아 삼복더위를 피하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냉면

더위에 좋은 음식은?

날씨가 더울 때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냉면? 팔빙수? 아니면 뜨~거운 삼계탕?^^ 아마 많은 분들이 더울 때 찾는 음식은 거의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을 우리가 여름에 찾게 되고 먹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시원한 냉면부터 알아볼까요?

냉면의 주재료인 메밀은 몸 속 열기와 습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 메밀국수와 냉면을 먹는 것은 더위를 이기는데 실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간기능과 이뇨작용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메밀이 가지고 있는 서늘한 성질 때문에 소화기간이 약한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팔빙수

다음은 시원한 팔빙수입니다. 팔빙수에 있는 얼음은 그 자체로도 시원하기 때문에 더위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팠'입니다. 팠은 열을 다스리고 갈증으로 인해 물을 마시게 되는 증상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한 팠에는 비타민B1이 풍부해 여름철에 식욕부진과 피로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팔빙수 외에도 팔로 만든 대표 요리인 뜨거운 팔죽 역시 복죽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복에 자주 먹었던 음식입니다. 삼복에 팔죽을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준다고 할 정도로 더위에 팔이 좋다고 하네요~



삼계탕

마지막으로 초복, 중복, 말복이 되면 우리가 찾는 음식, 바로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약재 중 황기의 효능이 더위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을 때 체력증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은 원기를 보호해주며 갈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현재 더위를 이기는 음식의 강자로 자리잡은 것이 아닐까요?^^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위에 좋은 음식들은 참 많은데요, 무턱대고 찾아서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체질을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하는 현명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으로 더위를 이기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7월 30일
재·보궐선거

편리한 사전투표, 재·보궐선거에도 실시됩니다!



- ▶ **시간:** 7월 25일(금)~26일(토) 오전6시~오후6시
- ▶ **장소:** 선거실시지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다가올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16개 선거구(국회의원 15곳, 기초의회의원 1곳)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미니총선으로 불리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 6.4 지방선거 때 도입된 사전투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실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많은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사전투표!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아래의 인포그래픽을 통해 알아볼까요?



이제 사전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을 때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6.4 지방선거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번 재·보궐선거 때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 받은 유권자는 각각의 투표장으로 이동하여

-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선거인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2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손도장을 찍는 것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록하여 이중 투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손도장을 원하지 않으면 서명으로 기록을 남기셔도 됩니다.)
- 3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받습니다.)
- 4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합하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어떤가요?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6.4 지방선거를 통해 검증된 사전투표! 7월 30일(수)에 투표할 수 없다면 편리한 사전투표를 이용해 보세요~ 사전투표는 7월 25일(금), 26일(토)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공약에 투표로 응원할 차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7월 30일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서도 투표시간은 보장됩니다!

- 신입사원 은아씨의 투표시간 보장 이야기 -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 은아씨는 지난 달에 실시된 6·4 지방선거 때 회사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덕분에 회사 내 모든 직원들이 일은 바쁘지만 투표에는 꼭 참여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은아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지방선거는 모든 지역에서 하는 선거라서 직원 전체가 투표를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자신을 포함해 몇 명 되지 않는 직원들만 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직원들이 거의 없고 윗사람에게도 말하기 곤란하다며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 꼭 투표하고 싶은데 눈치 안보고 할 수 없을까요?!

잠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으신가요?

7.30 재·보궐선거 역시 6·4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인 7월 25일(금)~26일(토)과 선거일인 7월 30일(수)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7월 23일)부터 선거일 전 3일(7월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재·보궐선거는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2시간이 더 길긴 하지만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라(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은아씨와 같이 투표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당당하게 투표하실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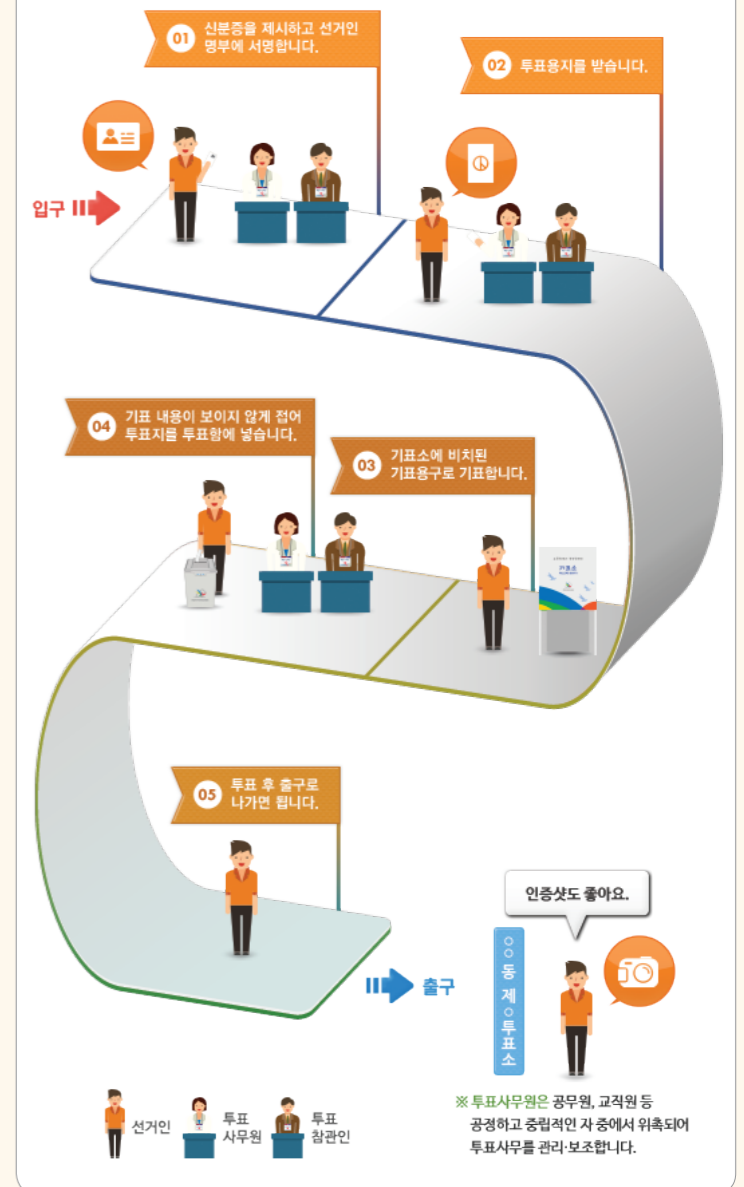
다가올 7.30 재·보궐선거!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투표절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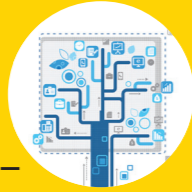
재·보궐선거 투표는 어떻게 할까?

투표 절차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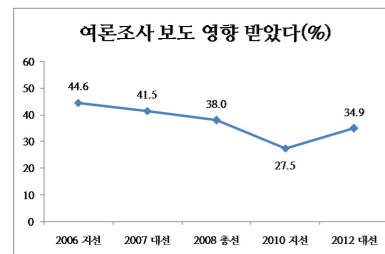
여론조사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선거여론조사의 기능과 한계 -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최근 선거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커지면서 규제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불공정한 보도가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이 크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입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선거 소위 '편승효과(bandwagoning effect)'나 '열세자 효과(Underdog effect)'를 유발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거에 입한 정당이나 후보들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방법론적으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과연 그럴까? 앞서 가는 후보로 지지를 쏠리게 만드는 편승효과나 반대로 뒤쳐진 후보에 대한 동정 심리를 의미하는 열세자 효과는 공히 유권자 다수를 분위기에 휩쓸리는 소위 '무식한 유권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한국의 유권자들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보면 사실 높은 학력수준과 정치적 지식 수준을 자랑한다. 한편에서는 맹목적인 지역투표나 동원투표가 진존하고는 있지만, 매 선거마다 절묘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유권자들은 견제 심리와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편승효과 또는 열세자 효과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폄하하는 효과를 낳는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압승을 여론조사 보도의 편승효과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 2010년 지방선거의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였던 여당 대신 야당이 승리한 것을 열세자 효과로 봐야 할까? 이명박 후보의 승리는 참여정부 심판론과 경제이슈에서의 우위의 결과이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야당 승리는 무상급식 이슈 선점과 정부 견제론의 결과라는 정치적 해석이 훨씬 효과적인 설명이 아닐까? 2012년 대선에서 선거 막바지 문재인 후보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요인 역시 다른 요인보다는 불완전한 야권단일화와 보수층의 결집에서 찾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더구나 투표 시 여론조사의 결과보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유권자들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 : EA·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KEPS 패널조사 데이터 '지후후 결정시 여론조사 보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비율
 ※ 2012년 대선조사 결과를 2010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동일 선거조사인 2007년 대선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같은 대선만 놓고 보면 41.5%에서 34.9%로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선거 과정에서의 우열이 여론조사로 드러나면서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본말이 전도된 듯하다.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의 유혹은 오히려 선거 불확실성이 클 때 유발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은 정상적인 캠페인을 유도하는 제도 정비와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의 선택 뿐 아니라 각 후보 및 캠프들로 하여금 보다 민의에 부합하는 캠페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압박하는 긍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는 메시지 전략과 타겟팅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다. 앞선 후보는 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충성심 높은 지지층과 약한 지지층을 구분하고 각각을 대상으로 한 세부 캠페인 전략을 고안해야 하며, 열세인 후보의 경우 상대 진영으로 경도되었거나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중간지대 유권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그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캠페인 전략을 수정하고 재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필수적이다. 결국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양측 모두가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제가 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복지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정책 포지션 이동을 캠페인 전략으로 내세웠던 것이 열세 국면을 반전시킨 핵심 요인이었음을 상기해보자.



문제는 모든 선거여론조사가 저절로 순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좋은 재료에서 좋은 요리가 가능하다. 신뢰성과 타당성 높은 여론조사가 양산되어야 순기능으로 작동하게 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론조사 방법은 수천만 전체 유권자의 민심을 천명 남짓한 상대적 소수(?)의 샘플을 뽑아 확률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실제 참값과는 차이 즉 오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이며 항상 틀릴 수 있는 확률도 내포하고 있다. 오차범위 내의 수치 차이를 유의미한 차이로 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오차의 크기는 무엇보다 뽑힌 샘플들이 얼마나 전체 유권자들을 잘 대표하는가에 달려 있다. 전체 유권자 중 일부집단을 과대 대표하거나 과소 대표할 경우 이들 샘플로부터 얻은 수치는 전체유권자들의 여론과 큰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계를 갖고 있지만, 여론조사가 한국의 선거 및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시계열적 변화추이 및 동일시점의 여러 조사 결과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여론변화의 추이와 해당 시점의 여론분포를 상당히 근사하게 추측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지만 통계적인 분석기법을 잘 활용하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낼 수도 있다. 여론조사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정확성보다 그 분석의 함의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여론조사는 완전무결한 방법도 100%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방법도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합된 조사 데이터는 동시에 수천만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유력한 창을 제공한다. 여론조사의 한계는 인정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 위 내용은 외부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진 정한울
 [약력] 고려대 정치학 박사, 현 동아시아연구원(EAI) 사무국장, 현 유엔사,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 민간자문위원회(KAC) 위원, 전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주요 저작 및 논문] 공저서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시리즈, 《박근혜 현상》, 《18 그리고 19》, 논문으로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자의 변동》, 《세대균열의 구성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외 다수

투표한다고 달라져?

- 가우스전자 마케팅3부의 회식 이야기 -

가우스전자 객백수 작가가 들려주는 7.30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웹툰 "투표한다고 달라져?"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는 7월 30일(수)은 재·보궐선거일인데요. 가우스전자 최고의 쿨카 강미씨처럼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25일(금)~26일(토)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로 미리 참여하시면 됩니다~! 혹시 차와와 과장님처럼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투표를 망설이시는 건 아니겠죠?

가우스전자 객백수 작가님의 투표참여 웹툰을 감상하시고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에도 꼭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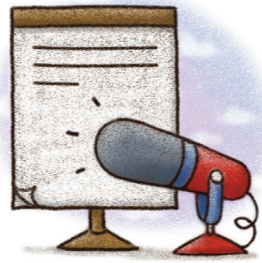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투표한다고 달라져?

객백수



선거운동의 시작! 선거벽보를 만나러 갑니다.



- 7.30 재·보궐선거 선거벽보 첨부현장을 찾아서 -

선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선거벽보'인데요. 거리에서 선거벽보를 보게 되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선거벽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선거 때 '후보자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첨부한 것'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난 7월 17일 목요일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선거벽보를 첨부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선거벽보! 선거벽보란 무엇일까요?



오전 10시30분, 저희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현장을 방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들께 간략한 오늘 하루의 일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지역 곳곳에 선거벽보를 첨부하는 현장을 취재하고 관계자분들을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벽보 첨부 현장으로 떠나기 전 선거벽보란 무엇인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누가 만들어서 누가 언제 첨부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인데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등을 비롯해 후보자의 정견과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첨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대통령선거와 성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첨부한다고 하네요~ 그럼 선거벽보를 첨부하는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주민센터를 지나 근처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마침 선거벽보를 한창 첨부하고 있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고,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분과 인터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벽보를 첨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는 몇 가지 <우만2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인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선거벽보를 붙이는 장소나 수량에 관한 것들이었는데요. 그럼 인터뷰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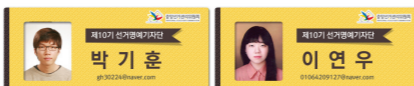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홍보팀장>

- Q. 우만2동 지역에는 선거벽보를 얼마나 첨부하나요?
- A. 이 곳 우만2동 지역에는 총 19세트(매)의 선거벽보를 첨부합니다.
- Q. 첨부할 선거벽보 수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A. 동(洞)지역의 경우 인구 1천 명당 1세트(매)를 첨부합니다. 우만2동의 경우 인구 수가 약 1만9천 명으로 19세트(매)를 첨부하게 됩니다.
- Q. 선거벽보를 첨부하는 장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A. 선거벽보는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선거벽보를 첨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첨부할 벽보판을 제작·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 Q. 선거벽보는 후보자 측에서 제작해서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그런 경우에는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의 선거벽보만 첨부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 지역 후보자 6명은 모두 선거벽보를 제출하여 6매 모두가 정상적으로 첨부되고 있습니다.
- Q. 선거벽보는 언제 첨부하는 것이며, 첨부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 A. 선거벽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첫 날인데요, 현재 모든 지역에 선거벽보가 첨부된 상태입니다. 19세트를 모두 첨부하는데 4~5시간 정도가 소요된 거 같습니다.

수원보호관찰소 앞

오늘의 마지막 첨부장소인 수원보호관찰소 앞. 이곳으로 이동하는 내내 팔달구 지역 곳곳에서 선거벽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원보호관찰소 앞에도 선거벽보를 첨부하였습니다. 건물 담장에도 선거벽보를 첨부한다는 사실이 조금 이색적이었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총 16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데요. 이 중 7,266개소에 선거벽보가 첨부됩니다.(선거벽보의 첨부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읍·면·동 단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 선거벽보의 매수만 해도 2천5천여 장으로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벽보가 첨부되고 나면 낙서가 돼 있거나 찢어진 선거벽보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부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직접 보완·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전체 선거벽보가 없어지거나 훼손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벽보 전체를 다시 첨부합니다. 한편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수시로 선거벽보 첨부장소를 순회·점검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선거벽보를 오·훼손하다가 적발되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절대로 선거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날의 취재를 통해서 선거벽보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 공약, 선거일, 장소 등의 정보만을 명시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최근 선거벽보들은 모양과 표현방식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충분히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과감히 선거벽보의 내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인물 중심의 감성적인 사진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인데요. 한편 무엇보다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선거'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벽보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소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선거벽보 하나에도 많은 이들의 숨겨진 노고가 있다는 사실! 이제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벽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의 몫입니다. 곧 다가오는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장이다옹~~!

- 고양이 시장 후보 '모리스'를 소개합니다! -



2013년 7월에 실시된 멕시코 할라파시 시장선거. 한 후보가 매우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다른 후보들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좀 특이하다고 하는데요. 긴 꼬리와 삼각형의 귀를 가지고 있으며, 네 발로 걷고 심지어는 점프도 잘한다고 합니다. 눈치 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자는 바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시장선거에 출마했다니... 장화 신은 고양이이라도 나타났 거 아니냐구요? 지금부터 '모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이 흑백색의 고양이가 어떻게 해서 시장선거에 출마표를 던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할라파 시는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주(州)의 주도(州都)로서 인구 4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마약 밀매의 본거지라는 오명과 각종 범죄 및 정치적 폐단으로 인해 할라파 시는 대내외적으로 몰살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널리스트와 사진 작가를 포함하여 9명의 언론 관계자들이 살해 당할 정도로 치안이 불안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자 할라파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하였고, 그 결과 시장선거에 고양이가 출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리스의 주인인 '세르히오 차모라'는 "온종일 잠만 자는 모리스가 정치인과 꼭 닮았다."며 "쥐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싫증 나셨다면 고양이에게 한 표를"이라는 파격적인 선거 구호와 함께 모리스의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페인어로 쥐(rata)는 보잘 것 없는 사람, 즉 기존의 부패한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말로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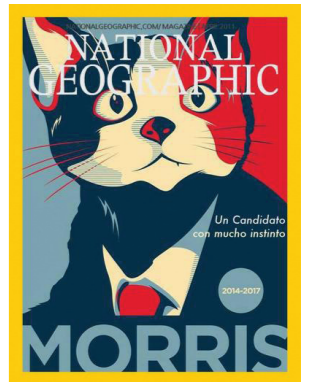
모리스는 함께 출마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페이스북 등 SNS를 타고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리스의 선거 캠프 페이지는 멕시코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누리꾼들에게 돌풍을 일으키며 한 달 만에 7만7,000여 개에 달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선거 포스터와 팬 아트들이 다수 제작되는 등 모리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남다른 관심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28만6,0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모리스의 선거 캠프 페이지는 멕시코의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며 지금도 조직적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시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 때문에 모리스의 출마는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모리스의 이름을 기입한 표들도 모두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은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고양이 시장 후보의 선풍적인 인기는 멕시코 여러 지역 다양한 동물들의 출마 선언으로 이어졌는데요.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는 당나귀, 나야리트 주 주 '테픽'에서는 닭, '푸에블라'에서는 고양이, '오악사카티'에서는 개가 각각 시장선거에 출마하기도 하였습니다. 멕시코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요. 1988년 브라질 '히우지제네이루'에서는 동물원의 침팬지 '치아구(Tao)'가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바나나당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바나나당은 비공식적으로 약 40만 표를 득표하는 등 브라질 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불가리아 '바르나' 시장선거에서는 당나귀 '마르코'가 출마하였는데요, 마르코의 대변인인 '애젤 디안코브'는 유권자들에게 당나귀의 굳센 성격과 우직한 이미지를 어필하며, 환경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 걸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동물들의 색다른 출마 선언! 그렇다면 이 중에 정말로 당선된 동물은 없을까요? 실제로 미국 알래스카에 위치한 작은 도시 '탈키트나'에는 고양이 시장 '스텝스'가 있습니다. 1997년 6월에 당선된 스텝스는 17년째 시장직을 연임하고 있는데요. 스텝스는 17년 전 시장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스텝스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는 바람에 당선 영광(?)을 안게 됩니다.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당선된 스텝스 시장은 각종 매체에 소개되면서 큰 이목을 끌게 되었고, 이 네 발 달린 시장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탈키트나 마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탈키트나는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해 고양이 시장의 지지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17년 간 탈키트나의 시장이자 마스코트로 활약해오던 스텝스에게 최근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8월 어느 때처럼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던 스텝스는 동네 맹견의 습격을 받았는데요, 흉골이 부러지고 폐에 구멍이 나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동물 후보들~ 지지하고 싶은 동물이 있으신가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동물 후보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기존의 정치 체계와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표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물들의 이색적인 출마 선언이 흥미롭긴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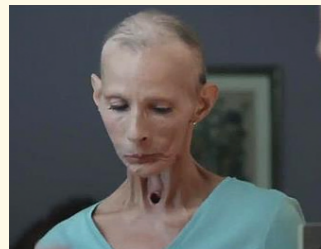
더 늦기 전에... 불편한 금연 광고

- 담배, 끊는 것은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



'불편한' 금연 광고가 지난 달 26일부터 공중파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란 제목을 단 동영상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힘들었기에' 끊지 못했던 남자는 결국 뇌졸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됩니다. 흡연은 뇌졸중 발병률을 3배나 증가시킨다는 문구와 함께 제대로 말도 못하게 된 남자는 "확실한 건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라며 흐느낍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죽음의 게임'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담배를 피울 때마다 뇌의 한 귀퉁이가 없어집니다.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인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게임'은 병석에 누워있는 불행한 남자를 비추며 '게임 오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죽음의 게임을 끝내십시오.'라는 내레이션이 들려옵니다. 흡연자의 공포를 자극해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 광고는 2002년 고(故) 이주일 씨의 금연 광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민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 흡연의 폐해를 알린 이 광고는 전국적으로 금연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파급력이 컸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금연 광고는 간접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묘사하는 '착한 광고'에 그쳤습니다. 다시 재개되는 이 불편한 금연 광고가 OECD 평균(20.3%)을 웃도는 우리나라의 흡연율(21.6%)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2014 7.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수치 참조)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적나라하기로 유명한 호주의 금연 광고에서 그 힌트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뇌에서 핏덩이가 똑똑 떨어지는 등 호주의 금연 광고는 적나라하고 자극적이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06년에는 흡연 때문에 구강암에 걸린 여성의 모습을 여과 없이 담아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목에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모습을 담아낸 광고도 있습니다. 호주는 2012년부터 담뱃갑에 특정 로고나 색깔과 같은 마케팅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담뱃갑의 민 포장(Plain Packaging)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의 모양과 포장을 하나로 통일시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는 '흡연이 초래한 심각한 질병'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담뱃갑 민 포장이 의무화된 이래 흡연율이 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담뱃갑 민 포장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명시하고 있는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규제 항목입니다.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은 각국이 이행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당사국총회도 개최한 바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CTC는 담뱃갑 인상, 경고 메시지 및 담배 경고그림 부착, 건강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구 금지, 담뱃갑 민 포장 삽입 등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제품 포장에 적절한 규제를 가하지는 국제 협약은 국내에는 제대로 도입되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형국입니다. TV 광고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담배제품 포장에도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담뱃갑 민 포장이 법제화 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바람이 불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국에서는 담배회사의 압력으로 여러 번 무산된 뒤에도 민 포장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혐오 금연 광고' 영상을 놓고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혐오 광고라고는 했지만 실제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가 출연하지 않아 경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영상에 한정된 금연 광고는 세계적 추세인 담뱃갑을 이용한 혐오 광고에까지는 한참 모자랍니다. 어쩌면 이 모든 노력이 흡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온통 선거로 집중되는 느낌이다.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을 15명이나 선출하는 '미니 총선'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이나 국정 운영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그 관심이 꽤나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무튼, 7.30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재·보궐선거에 대해 한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재·보궐선거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재선거)는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

이 무효로 된 때,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 무효로 된 때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0조(보궐선거) 제1항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결원 또는 결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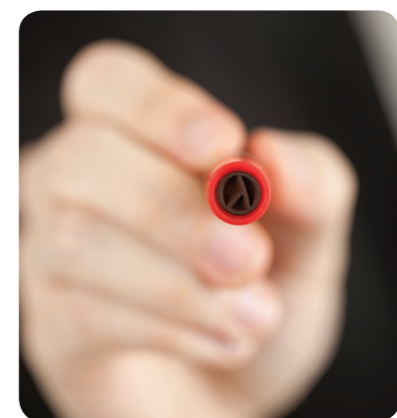
규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재선거는 애초의 선거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처음부터 다시(再) 선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보궐선거는 일단 애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그 선거 후에 발생한 사유로 그 직이 공석(闕)이 된 경우에 공석을 보충(補)하기 위하여 하는 선거인 셈이다.

이런 설명에 대해 '어?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거나,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않은 때는 선거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선거 무효, 당선인의 임기개시전 사퇴나 사망, 당선무효는 선거가 있는 다음에 생긴 사유이니 재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일리 있고 예리한 지적이지만, 선거란 선거를 통해 공직을 맡김으로써 당선자가 임기를 개시하여 공무를 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로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원 또는 결위가 생긴 때,에서 결원 또는 결위한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두 선거의 대표적인 예로서 근래에 있었던 것으로는 '재선거'의 경우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로 인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 오세훈 전 서울시시장의 사퇴로 인한 서울시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문용린 후보가, 후자의 경우에는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7.30 재·보궐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장용 의원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기 평택을, 경기 수원을이 '재선거'를 해야 하고(충남 서산태안, 전남 나주화순 포함 4곳), 정몽준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그만 둔(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즉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 동작을 등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재선거가 되었든, 보궐선거가 되었든, 그로 인해 당선된 선량(選良)들은 비록 전임자의 전임 임기를 채우기는 할 지언정 그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한 치의 다른도 없는 것이고, 공복(公僕)으로서 마땅히 자신을 뽑아준데 따른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유권자인 국민들은 총선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재·보궐선거의 중요성이 결코 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 판단으로 올바른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칫 국민보다 당리당락을 우선시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필진 김학웅 변호사
글쓴이 김학웅은 현재 법무법인 시화에 소속되어있는 변호사다. 그 외 SBS 시외시사, KSO 온라인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멀고도 험했던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직접선거

- 인도네시아 첫 직선제 대통령 유도요노 -



'세계 최대 인구의 이슬람 국은 어디일까?'라는 퀴즈를 내 보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를 소유한 이슬람의 본향을 자처하긴 하나 인구가 그리 많지 않다. 그 외 아라비아 국가들은 고만고만하고 이란이 좀 덩치가 크나 1억을 넘기지 못하고, 파키스탄이 1억 7천만 인구를 자랑(?)하며, 인구밀도 최고의 나라 방글라데시도 있지만 이 모두가 답이 아니다. 답은 '인도네시아'다. 태평양에 마치 수제비 뿌리듯 펼쳐진 큼직한 섬들, 즉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뉴기니의 절반 등을 무대로 살아가는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4천만이고 그 수의 90퍼센트가 이슬람교도이니 가히 지구상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역사는 장구하다. 19세기 네덜란드 군의관 외젠 뒤부아는 자바 섬에서 아득한 옛날 살았던 유인원의 유골 화석을 발견했으니 이게 자바 원인이다. 약 5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인류의 조상은 수 백만 년의 여행 끝에 아시아의 남쪽 자바에까지 도달했던 셈이다.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섬 가운데 고대로부터 자바 섬은 특히 풍요로운 섬으로 유명했다. 이미 2000년 전, 그리스의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에 '아바디우'라는 이름으로 소개돼 있을 정도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쿠빌라이칸도 이 부유한 섬을 탐내 원정 함대를 보내지만 자바 인들은 이를 무찔렀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말레이 반도가 영국의 식민 치하에 들어간 반면 자바, 수마트라, 보르네오, 뉴기니 일부 등은 네덜란드가 점령했고 '바타비아'라는 이름의 네덜란드 식민지로 오랜 세월을 보낸다. 물론 네덜란드가 드넓은 인도네시아의 섬 모두를 철저히 지배한 것은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역센 부족들은 20세기 초까지도 네덜란드에 저항하며 싸웠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자원은 네덜란드의 부를 낳았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군도 인도네시아에 발을 들이말았다.

제2차대전이 끝나고서야 인도네시아는 힘이 다 빠져버린 식민 모국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다. 독립 투쟁의 주인공은 인도네시아 국민당을 이끌던 독립 투사 '수카르노'였다. 네덜란드와의 독립 투쟁 과정에서 감옥에 갇힌 그는 일본군이 진주해 오자 석방돼 일본군을 도우면서 독립의 기틀을 닦았고, 마침내 네덜란드 군이 돌아오기 전 독립을 선언한다. 국민협의회를 통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임을 선언한 그는 4년간 네덜란드와의 밀고 당기기 끝에 완전독립을 얻어낸다.

그는 비동맹국들간의 모임을 주도하는 등 화려한 대외관계를 선보였지만 국내적으로는 그다지 민주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교도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회 민주주의를 질식시켰고 독재를 휘둘렀다. 그의 비동맹 외교와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수 백만 당원을 거느리며 성장했다. 그러던 중 공산 세력은 인도네시아 육군 지도부를 습격하는 쿠데타를 기도했고, 수카르노의 행보에 불만이 많던 또 다른 육군 지휘관들은 역 쿠데타를 가동하여 공산 세력의 기를 꺾는다. 그리고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대학살과 대탈출이 벌어진 바, 한때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로써 힘을 잃은 수카르노를 대신한 것이 철권 통치자 '수하르토'였다.

수하르토는 장장 30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면서 일곱 번 대통령을 연임했다. 모두 간접선거를 통한 것이었다. 달도 차면 기울고 호수도 고이면

썩는 법. 인도네시아 인들도 점차 30년 독재 정권에 저항의 깃발을 쳐들기 시작했다. 1998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은 금융 위기의 여파가 인도네시아를 덮쳤고 끝이 없어 보이는 경제 불황 속에 무능한 독재 정권에 대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인도네시아의 5월 항쟁. 자카르타 시내에서만 500명의 희생자를 낸 시위가 벌어졌고 수하르토는 일단 퇴진 의사를 비춘다. 단 "간접선거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30년 장기 집권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서 수하르토의 하수인이라 할 '하비비' 대통령이 수하르토의 뒤를 이었지만 그건 1,000명 중 500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500명 가운데에도 75명은 군부인사들이 차지하는 '국민협의회의' 간접선거에 따른 결과였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이런 어불성설의 '대의 기구'가 개혁을 다룬다는 데 대해 항의했고 또 수 많은 피가 이 태평양 섬나라의 주변을 붉게 물들이고 말았다. 수하르토가 물러난 이후 인도네시아는 6년간 3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혼란기를 겪은 뒤에야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2002년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2004년 7월 5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부터 동장까지 내 손으로"를 외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지 17년 만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유권자 수만 해도 1억 5천만 명. 뉴기니부터 자바, 셀레베즈까지 1만 8천여 섬, 58만여 곳의 투표소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 '메가와티(수카르노의 딸)'와 '생각하는 장군'으로 청령하기로 명성이 높던 '유도요노' 장군 등 5명의 후보자를 놓고 역사적인 한 표를 던졌다. 워낙 국토가 넓은 탓에 각 후보들은 비행기를 타고 곳곳을 누비는 강행군을 해야 했고 투,개표

과정만 해도 열흘이 넘는 장구한 선거였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는다는 희망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러나 7월 5일의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가리지 못했다. 1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였으나 50퍼센트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넉 달 뒤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유도요노는 60퍼센트 이상을 득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첫 직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는 인도네시아 의회의원들과 호주 등 인근국가 수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선서한다.

"알라의 이름으로 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으로서 공정하고 완전하게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독립 60년에 가깝지만 독재와 유혈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첫 직선 대통령으로서 산적해 있던 난제들을 해결해야 했던 유도요노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한 뒤 임무를 마무리했고(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7월 9일 사상 세 번째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열전 끝에 치렀다. 시련은 비록 길고 피비린내 또한 짙었으나 민주주의의 꽃은 남태평양의 거대한 섬나라 인도네시아에서도 굳건하게 피어 오르고 있다.

필진 김형민 PD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전공인 국사와 세계사를 틈틈히 공부해 SNS와 블로그에 '산하의 오역이란 제목으로 역사관련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모은 글을 엮어 '그들이 살았던 오늘'의 제목으로 책을 냈다. 현재 sbcsnbc에서 PD로 활동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ec.go.kr/>